

분체도료시장“ 가열 ”

LG화학 참여 따라 … 산업용 분체도료 부상

95년 분체도료 시장은 LG화학의 시장참여속에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LG화학은 150톤을 생산했으나 95년에는 1500톤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분체도료 생산기업은 건설화학, 고려화학, 대한IPK, 조광페인트, 현대페인트 등 6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국내 분체도료 판매현황 (단위 : M/T, 100만원)		
구 분	수 량	금 액
고 려 화 학	5,690	21,500
건 설 화 학	1,700	5,600
대 한 I P K	5,300	19,500
조 광 페 인 트	2,300	7,800
현 대 페 인 트	1,500	5,000
L G 화 학	150	555
합 계	16,910	59,965

또 건축용페인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화페인트도 분체도료시장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분체도료 생산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G화학은 그룹 계열사인 LG전자에 대한 판로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연간 2500톤의 분체도료를 소비하고 있는데 대한IPK와 고려화학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LG전자에 공급되던 분체도료의 59%정도가 95년 LG화학으로 대체공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분체도료 시장은 1만6910톤으로 추정되며 이중 고려화학이 5690톤으로 전체의 35.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

며 대한 IPK가 5300톤 31.4%, 조광페인트 2300톤 13.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00 톤 규모로 약 10%의 점유율을 보인 건설화학은 95년 2월1일부터 설비를 증설하여 3600톤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페인트는 1500톤으로 약 8.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LG화학은 0.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95년 분체도료 시장은 그동안의 가전제품용에서 탈피, 산업용 분체도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새로 부상하고 있는 시장이 중방식도료와 건축용 도료시장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건축용이나 산업용이 가전용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95년에는 절연도료, 항균성도료의 분체화 전환이 예상되며, 외관면에서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특수한 효과를 내는 시각성도료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5년 분체도료 시장은 94년 원자재인상을 반영해 94년보다 10%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체도료 가격은 폴리우레탄이 Kg당 5000 6000원, 폴리에스테르가 4500 5000원, 에폭시와 에폭시폴리에스테르가 3600 4400원, 3400 44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5/3/20>